

「루돌프·자이费特」著

## 『經營經濟學의 概念, 課題와 그 發達』

Rudolf Seÿffert: Über Begriff, Aufgaben und Entwicklung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5. Aufl., C.E.Peeschel  
Verlag, Stuttgart, 1963

韓 義 泳

### I

世稱「經營學史」라고도 일컬어 지는 이 책의 著者인 Rudolf Seÿffert는 西獨의 著名한 經營學者이며, 特히 商業經營經濟學의 當代 第一人者로 알려진 當年 75才의 老教授이다. 西獨經營學의 總本山인 Köln 大學에서 工業經營經濟學의 Erich Gutenberg 와 더불어 西獨經營學의 雙壁이라고 呼稱되는 大家이다.

過去 獨逸經營學의 主流를 이루던 이른바 倫理規範學派(ethische-normatische Schule)의 元祖인 Heinrich Nicklisch의 影響을 多分히 받어서인지, 1914年以來 수 없이 出版된 그의 著作物에서 散見되는 一貫된 共通性은 倫理規範論의 바탕위에서 形成된 見解의 披歷이다. 그래서 열핏 Seÿffert가 Johann Friedrich Schär나 Rudolf Dietrich, 혹은 Heinrich Nicklisch처럼 마치 倫理規範學派의 純粹派와 같은 느낌을 짙게 하나, 本人自身은 Fritz Schönplug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眞正한 뜻에서의 倫理規範學派에 隸屬되어 짐을 무척 꺼리키는 性品」이며, 또 사실 Seÿffert는 論述의 展開過程에 있어 때로는 技術論派(technologische Richtung)의 代表者格인 Eugen Schmalenbach(소위 Köln 學派의 創始者)의 技術論(Kunstlehre)을 支持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理論學派(thesretische Richtung)의 代表者格인 Erich Gutenberg의 生產理論(Kostentheorie)을擁護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兩派가 屬하는 이른바 經驗實際學派(empinisch-realistiche Schule)의 同調者인 듯한 느낌도 주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經驗實際學派의 一員이라 看做되어 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해면 그의 處女作인 1914年的「商人廣告論(Die Reklame des Kaufmanns)」

에서나, 또는 1930年의 「經濟的廣告論(Wirtschaftliche Werbelehre)」에서나, 혹은 1951年の「商業經濟學(Wirtschaftslehre des Handels)」에서 依例히 「經營原理의 第一章이 收益性追求가 아니라 바로 經濟性의追求」라고 喝破하는 모양이 마치 Heinrich Nicklisch 가 그의 優理規範論의 理論의 展開를 위해 그러한 命題를 걸핏하면 앞장 내 세우던 態度와 怡似하다는 뜻에서, 世人들이 그를 가리켜 아무래도 優理規範學派의 一員이라고 서슴치 않고 烙印찍을 수 밖에는 別道理는 없을 것이다.

## II

어쨌던 Seyffert에 依해서 著述된 이 책은 불과 56페이지의 小冊子에 지나지 않으나, 이미 1925年에 「商學의 理論과 實際(Zeitschrift für Handelswissenschaft und Handelspraxis)」라는 三月號雜誌에 처음 그 初版이 掲載되자 不過 一週日內에 賣盡되었다는 名作이다. 곧 이어 第二版이 同年에, 第三版이 倍增된 部數로 1928年에 增刊되어 當時의 經營學界에 非常한 關心을 불러 일으켰지만, 第一版과 第三版까지의 題號가 애당초 「經營經濟學의 概念과 課題(Uber Begriff und Aufgab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題目만 보아서는 얼핏 經營經濟學의 諸概念이나 諸課題에 對한 見解의 披歷만에 始終한 듯한 느낌을 줄을 두려워 해서, 그 後 1957年的 第四版서부터는 그 題號에 다시 「發展(Entwicklung)」이라는 어휘를 追加시켜 內容도 한층 더 擴充시킨 바탕위에서, 結局 主로 經營學의 歷史(經營學史)에 焦點을 둔 著述物로 「이메지·엎」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 때부터 이 책은 「經營學史」, 正確히는 「經營經濟學史」(Geschichte der BWL)라고 略稱되어 왔으며, 이 第四版이 單行本으로 出版되기에 앞서 이미 1956年에 「經營經濟辭典(Handwörterbuch der Betriebswirtschaft)」의 第一卷에 그 全文이 收錄됨으로써 名實共허 最界最初의 文獻史的經營學史로 登場하게 된 것이다.

勿論 1914年에 刊行된 Eduard Weber의 「商業經濟學의 文獻史(Literaturgeschichte der Handelsbetriebslehre)」가 없는 것은 아니나, 20代에 벌써 他界(第一次大戰中戰死)해야 했던 Weber의 그것은 文獻材料의 驅使面에서 보나, 혹은 理論의 展開와 結論의 誘導面에서 보나 人生의 成熟期에 접어 든 때의 Seyffert의 그것과는 감히 比較될 수도 없을 만치 소홀하고 局部的이며 斷片的이어서, 이렇듯 치밀하고 全局部的이며 總合的인 Seyffert의 文獻史的經營學史야 말로 真正한 뜻에서의 世界最初의 文獻史라 일컬어져도 한낱 不當한 世評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Weber가 客觀的인 立場에서 그다지 豐富하지도 않는 諸文獻을, 그 나마 極少量만 奚集해 놓고 斷片的인 描寫에만 始終하고 있음에 反하여,

Seyffert의 그것은 比較的 諸文獻들을 豐富히 審集해 놓고 綜合的인 分析을 通해, 비록 主觀的인 立場에서나마 各段階에 걸쳐 銳利한 批評을 加하는, 이른바 段階式考證의 連續임으로 Weber의 그것과는 애당초 180 度로 그 性格을 달리한 文獻이다. 다만 「비록 主觀的인 立場에서」라는 表現은 Seyffert의 이 책에도例外 없이 그의 倫理規範的思想이 多分히 露呈되기 때문에의 表現이며, 따라서 Seyffert는 역시 Nicklisch思想의 信奉者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新」倫理規範學派의 一員이라고 看做해도 그로서는 別로 抗辯할 口實은 없을 것이다.

이를 데면 그에 依해서 처음 提唱된 「Ökonomisierung(經濟化?)」이라는 新造語는 새로운 合理化運動의 指標를 마련하기 위해 Seyffert가 내 세운 倫理規範的思想의 表露이다. 그는 『經營이란 理性的인 形成(vernunftmäßige Gestaltung)인 合理化(Rationalisierung)의 바탕위에서 模索되어야 하지만, 오늘 날의 合理化는 技術化(Technisierung=technische Rationalisierung=技術的合理化)가 아닌 經濟的合理化(Ökonomische Rationalisierung=經濟化=Ökonomisierung)에 그 基礎를 두어야 한다(S.17)』고 力說하며, 經濟化라는 概念에 關해서는 그의 著書「經營要素로써의 人間(Der Mensch als Betriebsfaktor, Stuttgart, 1922, S.172~194)」에서 자세히 註釋을 붙이듯, 『經營의 核心的要素는 人間이기 때문에, 人間을 위한 人間向上, 즉 倫理性의 向上(倫理化=Ethisierung), 人間性의 向上(人間化=Humanisierung)이 곧 真正한 뜻에서의 合理化며, 이는 機械化나 技術革新化로 因한 이른바 技術的合理化(技術化)보다도 先行되어야 할 合理化며, 이를 經濟的合理化, 줄여서 經濟化라 한다』고 喝破하는 것이다. 사실 요사이 美國의 P.F. Drucker가 즐겨 총애하는 「企業家의 社會的責任」論이 오늘날의 企業家들의 收益性極大化一邊倒思想에相當한 衝擊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러한 思想은 벌써 Seyffert에 依해 技術的合理化一邊倒이던 1920年代에 이미 主唱되어 왔다는 사실을勘案한다면, Seyffert의 業績은 높이 評價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 III

이렇듯 Seyffert는 世界最初의 文獻史의 經營學史를 著述해 내였지만, 著作뿐만 아니라 實際로 大學에서 世界最初로 經營學史라는 獨立講座를 開設한 것도 그 自身이다. 그는 그의 책 本文에서도 言及하듯이 『經營學史라는 獨占教科目이 自己에 依해서 처음 開講된 것이 Köln大學에서의 1924/25年의 겨울學期며, 그 後 規則的으로 꾸준히 繼講되어 왔다(S.32)』는 것이며, 그 때의 講議案을 訂正, 刪除, 追加, 補充한 것이 바로 이 書評의 Text인

1963年版의 第5版인 것이다.

오늘 날 經營學史는 대략 「問題史的 經營學史(Problemgeschichte der BWL)」와 「文獻史的 經營學史(Literaturgeschichte der BWL)」로 大別됨이 通例인데, Seiffert는 물론 後者 的 代表者이며, 前者에는 이를 빼면 Josef Löffelholz를 그 代辦者로 둑어 놓음이 보통이다.

이른바 問題史的經營學史란 經營學에 關한 學術的(理論的)인 諸文獻뿐만 아니라, 實際的인 文獻인 藝記原張, 各種鑑定書, 會社定款, 會議錄, 하다 못해 有形·無形의 口傳과 風聞까지도 包含해서 이를 總合的으로 分析; 그 가운데에서 어떤 歷史的特徵(問題意識에 依한 時代區分)을 索出해서, 그 特徵지어진 時代區分에 따라서 經營學의 歷史를 段階的으로 說明하려는 것이다. 가령 Löffelholz의 問題史的 時代區分을 본다면 經營學의 歷史를

1. 르네상스時代의 經營經濟學(BWL der Renaissance)
2. 重商主義時代의 經營經濟學(BWL der Merkantilismus)
3. 工業主義時代의 經營經濟學(BWL der Industrialismus)
4. 20世紀時代의 經營經濟學(BWL der 20. Jahrhundert)

으로 區分하여, 經營學의 學術的諸文獻과는 別나른 關聯敘이 主로 實際로 빚어 진 그 時代의 問題意識을 土臺로 해서 經營學自體의 歷史를 說明하려는 것이다(Josef Löffelholz, Geschichte der Betriebswirtschaft und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Stuttgart, 1935 參照).

이러한 經營學史의 研究態度는 Seiffert의 말마따나『經營의 經濟史(Wirtschaftsgeschichte der Betriebe)의 研究를 위해서는 廣範圍하며, 綜合的이며, 또 合目的的일 수 있다 할지라도 Zeitschrift für Landeswissenschaftliche Forschung, Leipzig, 1936, S. 327』, 真正한 뜻에서 『經營經濟學의 歷史(經營經濟學史)의 對象은 經營經濟(Betriebswirtschaft)에 關한 理論의 歷史이며 經營自體의 經濟史는 아니기 때문에(nicht die Wirtschaftsgeschichte der Betriebe selbst), 적어도 經營經濟學史는 무엇 보다도 經營經濟學에 關한 學術的인 諸文獻들에 依한 歷史的認識(geschichtliche Erkenntnis)이 첫째(S.31)』가 되어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Seiffert는 Löffelholz를 서슴치 않고 『學術的業績과 實際的業績을 區別할 줄 모르는 사람(wobei ihm der Fehler unterlief, praktische und wissenschaftliche Leistungen nicht ausenanderzuhalten), (S.31. 小活字)』으로 規定하는 것도 無理는 아니며, 『오직 經營學의 全體 發展過程을 理論的인 바탕위에서 究明하기 위해서는 역시 諸般 學術的인 諸文獻의 分析·檢討를 通해서만 時代的 特徵을 抽出함이 可能하며……,勿論 文獻以外의 其他 材料들도 經營學史의 研究를 위해서는 貴重한 것이기야 하지만, 決코 그것이 全部는 아니다(上揭 Zeitschrift의 Besprechung)』라고 봄은 저극히 至當한 見解일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따라 Seyffert는 Löffelholz의 問題史的展開手法과는 달리, 經營學의 諸文獻에 반比重을 둔, 經營學의 理論(Lehre)에 關한 歷史를 追求하는 文獻史的展開手法을 駕使하여, 이론 바 그 有名한 六段階區分을 案出해 낸 것이다.

Seyffert는 經營學의 歷史를 대략 다음과 같은 段階로 區分해서 各段階別로 經營學의 歷史의 特異性을 學術的으로 考察함을 잊지 않는다.

1. 去來와 計算技術의 指導書의 早期時代(1675年까지)

(Die Frühzeit der verkehrs-und rechnungstechnischen Anleitungen) (bis 1675)

2. 體系의인 商去來學時代(1675~1804)

Die Zeit der systematischen Handlungswissenschaft) (1675—1804)

3. 商業學의 退步時代(19世紀)

(Die Niedergangszeit der Handelswissenschaften) (19. Jahrhundert)

4. 叙敘的商業技術의 再建時代(1898—1910)

(Die Aufbauzeit der beschreibenden Handelstechnik) (1898—1910)

5. 經營經濟學의 體系化와 擴大時代(1910/1912年부터)

(Die Zeit der Systematisierung und Ausweitung zur Betriebswirtschaftslehre)(ab 1910/12)

6. 一般經營經濟學의 統一과 深化 및 經營經濟政策分野에의 適用時代(1926年부터)

(Konsolidierung und Vertiefung der Allgemeinen Betriebs—wirtschaftslehre und ihr zunehmende Anwendung auf die Betriebswirtschaftspolitik) (ab 1926)

i] 6段階區分은 오늘 날 널리 즐겨 引用되는 經營學史의 時代區分이며, 大體로 體系의 인 區分이라 評價되는 段階說이다.勿論 이 6段階區分은 『決코 固定의이거나 絶對의인 것은 아니고, 靜의인 區分이 아니고 動의인 區分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서로 補完의이지 不可避免의인 即(in keiner Weise als starre Entwicklungsabschnitte anzusehen, sondern fließen inemander über—), 各段階에 주어 진, 独自의이라고 여겨 질 表現은 그래도 그 時代(段階)의 特徵을 適切히 浮刻시킨 表現(S.34)』인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第三版까지의 著作에는 「時代(Die Zeit)」代身에 「時期(Die Periode)」라는 表現이 쓰여 지고 있었을 뿐, 그 외의 表現에는 何等 이렇다 할 變節이 散見되지 않으며, 또 이러한 時代區分과, 이에 따른 表現이 1925年以來 오늘까지 半世紀間이나 確固不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래도 Seyffert의 이러한 時代區分만이 아직도 唯一無二한 文獻史的經營學史의 時代區分의 王座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어째서 Periode가 Zeit로 둔갑하였는지는 알길은 없으며, 다만 Periode보다도 Zeit가

그 어떤 學史의 時代區分에는 치극히 合當한 表現일 것이라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지되, 그것 보다도 各段階에 對해서 逐次的으로 特徵의in 諸事實들을 羅列하고, 이들을 일일히 重點的으로 要約·批評하는 手法이 더욱 印象的이다. 더구나 到處에 自己의 勞作들과 業績을 隱으로 은근히 誇示하면서도, 陽으로는 先輩나 後輩를 위해서 敬意를 아끼지 않는一面도 지닌 이 老教授의 手法은 우리가 애써 본 받아야 할 鑑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이를테면 이렇게 말 하는 것이다.『만일에 아깝게도 일찌기 天折한 Eduard Weber의 研究나, Köln 大學에 있는 내 研究所 研究員들의 業績과 뒷받침이 없었드라면 이 책은永遠히 그 햇빛도 못 보았으리라(S. 34)』고.

#### IV

이제 Seyffert의 이러한 時代區分에 따라 各段階에 있어서의 特徵을 逐條的으로 훑어내려 가면 대략 다음과 같은 內容이 浮刻되기 일쑤이다.

Seyffert가 初期時代(Frühzeit)라고 말하는 第一期는 經營學史에 있어서의 이른바「經營學前史」에 該當되며, 특히 文獻史的經營學史에 있어서는 經營學에 關한 世界最初의 學術的文獻이라고 알려지는 佛人 Jacques Savary의 著述「完全한 商人(La parfait négociant)」이 出版된 해(1675年)를 이른바 經營學前史의 終着年이자, 올바른 뜻에서의 經營學史의 始發點이라 보는 것이다. 그래서 1675年까지를 통털어 經營學前史라 해서 文獻史的經營學史에서는 이 前史에 그다지 큰 比重을 두지 않는 것이一般的인 通例이다.

그러나 學術的인 諸文獻뿐만 아니라, 이미前述한 바 있는 것 처럼 藩記原張, 會議錄, 하다 못해 有形·無形의 口傳·風聞까지도 包含하는 「實際的인 諸材料들」도 學史의 올바른 把握을 위해서는 必須不可缺의 補助材料가 될은 當然한 理致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 어 사실 問題史的이건 文獻史的이건 間에 經營學史의 올바른 研究態度이기도 하지만) Seyffert自身도 그러한 前史를 물론 全혀 輕視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세하게 前史時代의 이모저모에 言及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自身으로서는 그러한 前史時代에 대단한 興味를 느끼는 모양이다. 다만 Seyffert自身이 獨逸人이기 때문인지 前史時代를 휩쓸던 伊太利人の 業績을 Josef Löffelholz처럼 그렇게 크게 過大評價하지 않고, 그다지 神通치 않다고 믿어지는 當時의 獨逸人業績에 대해 오히려 상당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좀 어색한 自己辯明인 것 같은 느낌이다. 이를 테면 經營學의 前身인 商去來學(Handlungs wissenschaft)의 先驅者로 손꼽히는 伊人 Pegolotti, Pacioli, Peri等의 業績을 強調하면서도 獨人 Wagner, Meder等에 詳細히 言及함도 잊지 않는 것과 같다.

어쨌던 Seyffert 가 早期時代의 特徵을 「去來와 計算技術(말하자면 장사術)」만의 連續時代라고 看做하는 것은 그러한 技術自體는 아무런 學問的價値도 없을 뿐, 그러한 「技術」까지도 그 技術의 哥蘭地인 伊太利에서 伊太利人家族만에 依해 秘密로 간직된 채, 단 한 번도 一般에게 公開된 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야 물론 伊人們에게는 『그러한 長사術이 唯一無二한 資本(das ängstlich gehütete Kapita) (S.36)』이며, 家族以外의 모든 種族들에 依한 習得을 꺼리켜, 다만 直系家族의 손에 依해서만 口傳되었기 때문에 一般에게 公開되었을 까닭도 없지만, 좀 넓은 視野에서 짐작 公開되었더라면 經營學史의 前身인 商去來學史의 發展이 더 오랜 時點에서 開眼되었을 것은 틀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口傳이 처음 公開된 것이 世界最初라고 看做되는 F.B. Pegolotti의 手記라고 알려 지는데, 不幸히도 이 手記의 出現年代가 明白하지 않고(다만 1335~1545年代라 推測될 뿐), 또 손으로 쓰여 진 단 하나의 手記라는 點에서 學術的文獻으로 看做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1494년에 伊太利人 Luca Pacioli에 依해서 最初의 「技術指導書(Anleitung)」인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가 活字로 出版된 時點서 부터 經營學史家들은 아연 緊張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이 책은 去來技術이나 計算技術뿐만 아니라 商業 그 自體에도 言及이 있고, 더구나 世界最初的 複式簿記에 關한 叙述도 包含되어 있어서, 소위 問題史의 經營學史家들은 이 時點을 經營學前史와 經營學後史의 分岐點으로 看做하는 것이다.

이런 類의 著述은 그 後 數 많은 實際家들에 依해서 許多히 刊行되었으나(이를 데면 Heinrich Schreiber의 Rechenbüchlein, Giov. Domenico Peri의 il Negotiante 等), 『이러한 著述들은 素材의 取扱이 소홀하여 어느局面에만 置重한 非體系의인 것』이기 때문에, 學術的取扱(wissenschaftliche Behandlung)이라고 일컬기가 困難』함은 사실이며, 따라서 『商業經營의 모든局面이 秩序整然하게 論述되었을 때 비로소 學術的取扱이라 일컬어 질 수 있다(S.36)』는 뜻에서 Seyffert는 서슴치 않고 Jacques Savary(1622~1690)의 「完全한 商人」이 出版된 해(1675年)를 「體系의인 商去來學時代」의 始作이라 보는 것이다.

Seyffert는 第二期인 이 時代를 商去來學(Handlungswissenschaft)과 商學(Handelswissenschaft)에의 移行時代라 보고, 第二期가 끝장날 무렵인 1800年初를 真正한 뜻에서의 商學(Handelswissenschaft)의 發生期이자 곧 退步期라 呼稱하는 것이다.

Savary의 「完全한 商人」은 商業經營에 關한 全般的인 問題를 體系의으로 取扱하였으며, 특히 世界商業論(Welthandelslehre)에 關한 대목은 이 책의 壓卷이며, 또 世界最初的 「商法典」의 草案者인 까닭인지 商事法의인面(Landelsrechtliche Dinge)에도 言及이 많았으나,

不幸히도 역시 商業技術學의 要素가 多分히 内包되었음이 흄이라면 흄일 것이다. 그러나 Seyffert 는 『비록 유치한 形態를 벗어 나지 못한 商去來學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學問을 어느 程度라도 定立시켰다는 點에서는 Savary 의 業績은 높이 評價되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나서 『그래도 Savary 의 業績을 그대로 踏承하면서도 自己 나름대로의 理論을 體系化시켜, 學問다운 學問으로(비록 商去來學일지라도) 結局 大成시킨 사람으로는 역시 Karl Günther Ludovici (1707—1778)를 들 수 밖에는 없다(S.38)』고 덧 불임을 잊지 않는다.

사실 Savary 는 學者라기 보담도 法律家나 實際家의 面이 짙어서, Ludovici 야 말로 商去來學의 唯一한 「學問의 代表者」(der erste akademische Vertreter der Handlungswissenschaft)라고 看做함이 옳으며, 더구나 그에 依해서 그 有名한 「商人辭典(Kaufmanns Lexikon)」이 出版된 業績을 보아도 그렇게 評價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勿論 『Ludovici 的 經營經濟學에 對한 業績은 두가지로 評價되며, 그 하나는 最初이자 最良의 辭典出版이며, 또 하나는 一般的인 面에서의 이론바 「商人學(Kaufmannswissenschaft)」의 體系化와 特殊的인 面에서의 商去來學(Handlungswissenschaft)의 體系化다(S.39)』라고 Seyffert 가 極口 친양하지만, 嚴密한 뜻에서는 Ludovici 보다도 「商業體系(System des Handels)」의 著述者인 Johann Michael Leuchs (1763—1836)의 業績이 더욱 高次元의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Ludovici 의 業績은 어디 까지나 實學의 性格의 商去來學의 大成이지(一例로 그의 辭典自體가 별씨 實學的), 綜合的인 理論과 實際의 集大成인 商業(Handelwissenschaft)의 그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 商學이라고 일컬어 지는 學問을 體系化시킨 것은 全히 Leuchs 의 業績이며, 그래서 Seyffert 自身도 Leuchs 의 「商業體系」가 出現한 해 (1804年)를 終點으로 第二期인 商去來學時代의 終末이라 보는 것이다.

勿論 Savary 以後 Ludovici 와 Leuchs 에 이르기 까지의 約 129年間에 그 以外에도 許多한 文獻의 業績들이 洪水처럼 쏟아져 나왔으나, 대략 Savary 나 Ludovici 의 影響을 踏承함에 그친 商去來學의 文獻이 壓倒的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것이 겨우 Leuchs 의 出現에 依해 百花爛漫하던 商去來學이 그 자취를 감추어, 잇 달아 Leuchs 의 商學이 登場하게 된 것이지만, 어전 일인지 Leuchs 를 마지막으로 그 後 約 100年間, 아무런 文獻이나 學者의 그림자조차 찾아 볼 수 없는 時代가 到來하게 되었으니, Seyffert 는 이 時代를 가리켜 第三期에 該當되는 소위 「商學의 退步時代」라 呼稱하는 것이다.

約 19世紀全般에 걸쳐 Leuchs 를 마지 막으로 商去來學뿐만 아니라, 商學도 그 자취를 감추어야 했던 理由를 들쳐 Seyffert 는

- 1) 商去來學 내지 商學에 對한 商人們의 認識不足
  - 2) 官房學(Kameralwissenschaft)의 一部分으로써 商去來學 내지 商學이 取扱되어 왔기 때문에, 官房學이 擴大됨에 따라 自然 商學部分에 關한 學術的인 講義나 學問的인 文獻이暫次 그 차취를 감추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 3) 실은 그것 보다도 商業學校制度의 缺陷 自體에 있다(S.42)
- 고 指摘한다. 즉 理論보다도 實際的인 技術에, 個別經濟的인 觀點에서 보다도 國民經濟的인 難點에 그 重點을 置換시킨 當時의 教育制度自體가 자연 商學의 衰退를 갖어 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어찌 되던 經營學의 前身인 商學이 一世紀동안이나 無視 내지 輕視되어 온것 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或者, 이를 테면 Josef Hellauer는 이 時代를 가리켜 「商學의 壓迫時代(Diskreditierung der Handelswissenschaft, S.42)」라고 呼稱하기도 하며, 오늘 날의 經營學者들은 依例히 「經營學의 暗黑時代」라고 酷評하기 일쑤인 것이다.

그려나 Seyffert는 오히려 이 時代야 말로 商學을 母體로 한 새로운 經營經濟學(BWL)의 胎頭에의 新紀元이 된다고 絶叫하고, 『이렇듯 一世紀間의 空白은 생겼지만, 오늘 날의 經營經濟學을 招來하는 動機를 提供해준 것은 틀림없이 이 時代의 德분이다(S.44)』라고 덧 붙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長期間에 걸친 商學의 沈滯에 견디다 못한 人士들이 각處에 보혀 商學의 再建을 위한 能動的이며 超黨派的活動을 展開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工業技術一邊倒的이거나, 官房學 내지 國民經濟學一邊倒的인 學問의 分圍氣에서 忽然히 일어 나서, 그 脫出口를 商業專門教育機關의 設置에서 찾어 보려는 움직임이 獨逸을 中心으로 해서 特히 Österreich, Schwerz 等地에서도 旺盛해 진 것이다.

드디어 그 첫 成果는 1895年에 그 發足을 본 產業協同體制의 『獨逸商業教會協會(Deutscher Verband für das kaufmännische Unterrichtswesen)』가 主動이 되어 1898年에 史上最初로 Leipzig 와 Wien에 각각 그 첫 商科大學를 設置함으로써 나타 났으며, 이를 契機로 商學이 實質的으로 再建되기 시작한 것이다.

1898年을 筆頭로 1910年엔 Köln과 Frankfurt에, 1903年에는 Aachen, 1906年 Berlin, 1908年 St. Gallen, 1910年 München等 數없이 商科大學들이 繽紛 設置, 名實共허 商學教育이 大學의 「레벨」에서 活潑히 研究되어 오늘의 經營經濟學의 體系化를 이루는 母體가 되자, Seyffert는 서슴치 않고 이 時代를 經營學史의 第四期라 보고, 商科大學의 最初의 設置年度인 1898年을 그 時期의 始作이라 보는 것이다. 오늘 날 美國에서 盛行하는 Case Study(Fall-Metode)도 실은 이때에 이미 獨逸人에 依해서 創案되었다(S.45)고 主張할 만치, 商學에 關한 講義와 그 內容은 상당히 充實하였던 모양이다.

商科大學에서의 講義와 研究가 活潑해지자 자연 商學者(오늘 날의 經營學者)들이 다시 繼續 出現하기 시작한 것은 當然한 致理이며, 不過 第四期의 約 12年동안에 (1898~1910) 近代經營學史의 登場人物로 그 比重이 높은 Eugen Schmalenbach, Heinrich Nicklisch, Josef Hellauer, J.F. Schär, M. Weyermann, H. Schönitz 等 無數의 諸學者들이 縱橫無盡으로 活躍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第四期時代의 特徵은 일찍 著名한 學者들의 大舉 繽出이라 看做되기 쉬우나, 文獻史的經學史의 立場에서는 그것 보다도 史學初有의 經營學雜誌들이 다양한 形態로 솟아져 나왔다는 事實에 더욱 그 比重이 높여지는 것이다. 즉 1906年에는 Schmalenbach에 依해서 「商學研究誌(Zeitschrift für handelswissenschaftliche Forschung)」가, 1908年에는 Nicklisch 와 Obst에 依해서 「商學의 理論과 實際誌(Seitschrift für Handelswissenschaft und Handelspraxis)」가 出版되었으며, 그 以外에도 群少雜多한 雜誌들이 繼續 出刊되기 시작하여 바야흐로 雜誌洪水의 滿發期가 닥쳐든 것이다.

그래서 商科大學의 設置와 經營雜誌의 出版이 分明히 이 時期의 特色으로 아로 새겨 지지만, Seyffert 自身은 그 以外에도 『經營學自體에 關한 名稱, 즉 學名에 關한 諸用語들』이 그 混亂의 頂上을 달리던 때도 바로 이 때(S.46)라고 몇 불이는 것이다. 그는 유감하도 各己 用語에 關한 概念上 혹은 意義上 說明은 하지 않았으나, 『오늘 날의 『經營經濟學(Betriebswirtschaftslehre)』과는 統一된 學問名이 暗暗裡에 採擇·通用된 것이 1918年以後(S.46)』라고 보고, 그 時期를 前後하여 대략 다음과 같은 諸學問名이 混用되었었다는 것이다. 이를 데면 「個別經濟學(Einzelwirtschaftslehre)」, 「商學(Handelswissenschaft)」, 「私經濟學(Privatwirtschaftslehre)」, 「經濟的經營學(wirtschaftliche Betriebslehre)」, 「經營科學(Betriebswissenschaft)」等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듯 商科大學에서의 研究와 雜誌의 出版이 活潑해 지자, 자연 經營學에 關한 體系의 研究도 本格化되기 시작한 탓인지, 그 後 1910~12年的 不過 2年동안에 商業經營論란 아니라 其他 모든 經營의 全體의問題를 體系的으로 追求하는 經營學의 文獻들이 여려 學者에 依해서 大舉 出版됨으로서, 이 時期부터 第五期인 「經營經濟學의 體系化와 擴大時代」가 시작된다고 보고, 各學者들이 執筆한 代表的著述들을 例示하면서, 그 內容이나 特徵을 차례로 紹介·批判한 대목은 이 책의 歷卷이 될 것이다.

사실 이 時期에 이미 經營學에 있어서의 이른바 「方法論爭(Methodenstreit)」의 灼이 틈 것으로 미루워, 各學者間의 진지한 甲論乙駁과 百家爭鳴의 論爭은 結局 經營經濟學의 統一과 深化를 위한 지름길이자 밑거름이 된 것이라 보아야 옳을 것이며, 고려기에 Seyffert 가 第一次方法論爭이 終熄한 1920年代 後半을 現代經營經濟學의 確立時期로 잡은 것도 무

리는 아니며, 올바른 뜻에서의 世界最初의 經濟經營事典들이 잇달아 出版될 1926年을 出發點으로 第六期인 「現代經營經濟學의 統一과 深化時代」가 그래서 始作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Seyffert 는 Heinrich Nicklisch 의 「經營經濟事典(Handwörterbuch der Betriebswirtschaft)」, Karl Bott 의 「商人事典(Handwörterbuch des Kaufmanns)」, Eugen Schmalenbach 의 「經營經濟學概觀(Grundriß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그리고 Fritz Schnidt 의 「商科大學全集(Sammelwerk der Handelshochschulen)」等의 諸事典 내지 全集들이 이 새 時代의 出發點을 장식한다고 極口 칭양하는 것이다.

이려한 諸學者들의 活動과 業績에 힘 입어 그래서 오늘날의 經營經濟學은 이제는 確固한 바탕위에서 그 發展이 無限의 連續되어가고 있는 것은 至極히 흥쾌한 일이긴 하되, 그래도 『오늘 날 經營經濟學이 當面하고 있는 課題는 아직도 不知其數』이며, 尚今도 解決되어야 할 課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유감이지만, 『大學에 있어서의 經營學教育이 차츰 本軌道에 들어 섬으로써 차차 解決되고 있다(S.52—55)』라고 덧 붙이고, 이어 그가 『오늘 날의 現代經營經濟學이 한 複雜한 經營全般問題의 把握보다도 各 特殊領域에 對한 理論的追求와 그 應用面(經營政策)이 더욱 重要視되는 것이다(S.51)』라고 喝破한 것은 至當한 名言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끝으로 그는 例의 倫理規範的思想을 發露시켜 『經營의 核心問題는 아무래도 還시 人間이며, 그 倫理性과 人間性이 重視되어야 한다(S.56)』고 強調함으로써 그 終章을 끝 맺고 있는 것이다.

<附記> 元來 著者인 Seyffert 는 이 책에서 約 30페이지에 達하는 部分을 「經營經濟學의 概念과 그 課題」에 關해 言及하고 있으나, 이 書評의 比重이 紙面關係로 主로 殘餘部分인 「文獻史的經營學史(經營經濟學의 發達)」에 주어진 點을 밝혀둔다.